

[참고]

네트워크 관련 통계 현황

□ 현재 국내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스마트TV 등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확산에 적합한 환경을 보유

○ 초고속인터넷(브로드밴드) 보급률 연속 OECD 1위

구분	한국	영국	미국	일본	프랑스
가구 보급률(%)	95.9(1위)	69.5(9위)	63.5(11위)	60.0(15위)	57.5(17위)

※ OECD 발표, '10.7월 기준

○ 광통신망 가입자 연속 OECD 1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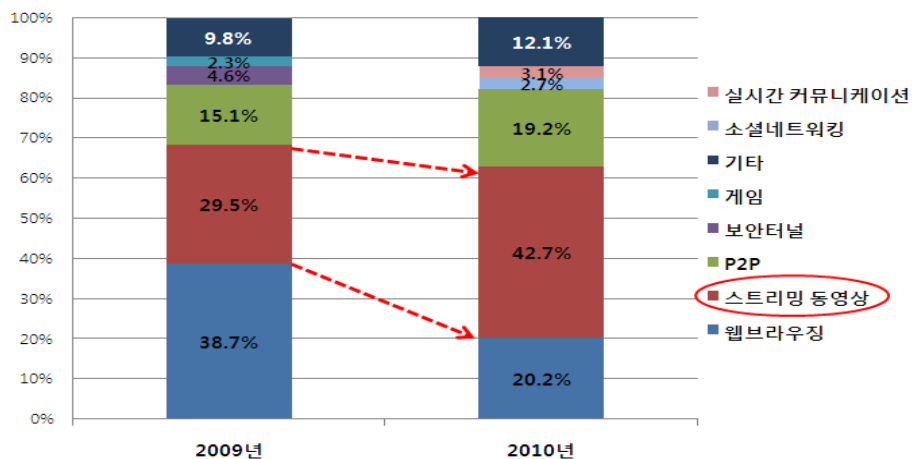
구분	한국	일본	스웨덴	미국	프랑스
인구 100명당	17.9(1위)	14.6(2위)	7.8(3위)	1.4(10위)	0.1(20위)

※ OECD 발표, '10.6월 기준

□ 이러한 인프라 우위에도 불구하고, 향후 인터넷을 통한 고품질의 동영상 유통 증가는 네트워크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

○ 최근 북미에서는 스트리밍 동영상이 웹브라우징, P2P 파일 공유를 제치고 가장 높은 유선 트래픽을 점유

〈 북미 유선 트래픽 점유율 비교 (피크시) 〉



※ 출처 : 2010 sandvine

- 특히, 인터넷동영상서비스 **Netflix**(가입자 2,000만)는 북미 인터넷 사용 트래픽의 20.6%를 차지 (픽타임 기준, 오후 8-10시)

〈 북미 Downstream 트래픽 점유율 〉

	1위 (22.7%)	2위 (20.6%)	3위 (9.9%)	4위 (8.4%)	5위 (6.1%)	7위 (2.6%)	8위 (2.4%)	10위 (1.6%)
어플리케이션	HTTP	Netflix	You Tube	Bit Torrent	Flash Video	iTunes	Face book	Xbox Live

※출처: 2010 sandvine

- o 한편 아태 지역에서는 BitTorrent, PPLive, PPStream 등 파일공유 관련 서비스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법복제 만연 추정

〈 아시아태평양 Downstream 트래픽 점유율 〉

	1위 (27.3%)	2위 (16.9%)	3위 (11%)	4위 (7.9%)	5위 (7.1%)	6위 (2.9%)	7위 (2.3%)	8위 (2.2%)
어플리케이션	HTTP	Bit Torrent	Flash Video	PPLive	PPStream	iTunes	Face book	You Tube

※출처: 2010 sandvine

- 중장기적으로 3D, UHDTV 등 고품질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대비한 유·무선 네트워크의 지속적 고도화가 필요

〈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 전망 (Cisco 2010.6) 〉

